

건설사업의 ESG 협력시스템 구축과 지원방안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책임연구원
(eunhyung@ricon.re.kr)

- I. 서론
- II. ESG의 부각과 건설산업의 특성
- III. 건설산업의 ESG 도입현황과 한계
- IV. 협력시스템 구축과 지원방안
- V. 결론

2

I. 서론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준말로써 기업에 대한 비재무적 평가기준이 되는 요인을 말한다. 2006년 UN 책임투자원칙(UN PR)를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ESG가 이들이 투자의사결정에 반영되면 ESG투자, 기업의 경영방침에 반영된다면 ESG경영이 되는 식으로서 적용범위에 별다른 제한은 없다.

지금은 전 산업분야에 걸쳐 ESG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며 건설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건설산업에서도 ESG는 매우 중요하며 여기에는 이견이 없지만, 다만 아직까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의 적용이 한정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특성과 현실을 살펴보고 적절한 지원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 ESG의 부각과 건설산업의 특성

1.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닌 ESG

ESG가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지만 그 개념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며, 기존의 사회책임투자를 ESG라는 3개 분야로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 따라서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의 개념을 안다면 ESG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회책임투자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요소를 투자의사결정에 함께 반영하는 것으로서, 개념적으로는 ESG투자와 지속가능투자 등을 포함하게 된다.

사회책임투자의 시작은 윤리규범을 투자결정에 적용한 것으로서 유해산업(술, 담배, 도박 등)을 투자에서 배제하는 식의 네거티브 스크리닝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반전·인권·사회·환경운동이 더해지면서 더욱 부상되었다. 초기에는 Governance 등의 측면에서 당위성이 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 친환경분야의 인프라투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투자수익률도 중요해지면서 종전에는 관심분야가 아니던 부동산이나 사모펀드같은 분야에서도 사회책임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2006년에 발표된 UN책임투자원칙의 주요 내용은 최적의 장기투자수익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비재무요소인 ESG를 재무지표와 함께 투자결정에 반영토록 권고한 것이다. 동 원칙은 ESG투자의 초기개념은 물론 사회책임투자의 주류화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ESG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책임투자의 이상론적인 요소가 더욱 크다고 내용으로 이해하면 용이하며, 전자가 후자보다 경제적이거나 수익률을 중시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사회책임투자와 ESG가 강제의무사항은 아니기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ESG와 관련이 큰 건설산업의 특성

ESG측면에서 건설산업이 갖는 연관성은 매우 크다.

먼저, 건설공사는 실내보다 야외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그 과정에서 자연과 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개발사업과 보존간의 의견차이나 갈등도 쉽게 발생한다. 현장환경(공사과정의 소음이나 먼지), 자재의 환경적 영향, 오염물질 배출, 온실가스 배출 등도 필연적인 사안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그렇다. 건설기업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 건설산업에 속한 공급망에 연결된 관계자들의 이익과 복리 증진, 건축물의 성격에 따른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조율, 환경침해에 대한 보상, 현장노동자의 인권, 고용창출과 안정성, 인력수급에 따른 일자리창출 등이 예시이다. 또한 분업과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건설업을 구성하는 주체들간의 협력과 제조업 등 타 산업과의 연관성을 무시하기 어렵다.

표 1 건설산업의 특성

기업명	내 용
수주산업·수요독점	• 건설생산은 해당 시설물의 수요독점자인 발주자(소비자)의 주문이 있어야 수주한 업체에 의하여 생산이 시작됨. • 발주자가 가격, 품질, 안전에 영향을 주게 됨
현장생산·토지의존	• 건설생산은 현장에서 토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생산과정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현장소음과 먼지, 오염물질 배출, 온실가스, 안전, 주민관계 등이 중요.
복합생산·분업구조	• 건설생산은 복합적 생산과정. 따라서 분업적 방식에 의한 생산이 필수적임. • 기획·설계·시공 과정의 환경적 접근, 하도급의 공정성, 안전과 보건, 산재, 근로자 인권과 복지, 자재의 환경성 등이 중요(수평적 분업) 기획·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프로세스에 따라 분업이 발생(수직적 분업) 원도급공사를 공종에 따라 분리하여 시공하는 하도급이 수직적 분업에 해당
계절생산	• 건설생산은 일회적 과정으로 종결. 고용의 연속성, 인력수급의 원할, 네트워크의 안정성이 중요 • (프로젝트 중심의 일시적 생산조직) 생산조직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일회성으로 구성되며 시설물이 준공되면 생산조직은 해체. (기간제고용이 일반적) 인력과 장비에 대한 고용이 일회적이며 관리네트워크가 중요.

III. 건설산업의 ESG 도입현황과 한계

1. 건설산업에서의 ESG 도입현황

국내 건설사들도 ESG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입하는 과정에 있지만 산업 차원에서 ESG를 포괄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실무적으로는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공사 수주와 함께 해외사업 진출과 성공적인 현지화전략의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실행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다만, ESG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임에 따라 어떤 획기적인 이벤트나 기존에 없던 성과를 제시하는 경우를 찾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 인근에서 주민들을 기능인력으로 고용한다거나 지역업체가 제조한 자재를 사용하는 것은 ESG가 아니더라도 사업자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옵션으로 볼 수 있다. 설계도면의 전산화를 통해 출력에 사용되는 종이소요량을 절감하는 것은 비용절감과 업무효율성 측면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 친환경·신재생에너지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사업다각화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는 사안이다.

표 2 국·내외 주요 건설사들의 ESG 적용 사례

기업명	내 용
(미국) 벡텔	• ESG를 반영한 현지친화적 해외사업 수행 - 동사가 수행한 코소보의 고속도로사업(Route 6)에서는 친환경설계를 적용. 참여인력의 80%를 현지인으로 고용하고 하도급공사의 70%를 지역업체가 담당. 100,000시간의 경력·전문교육을 실시. • 현지 학생들 대상의 리더십 프로그램 진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동화노력 • 미국 내에서도 장기프로젝트의 사업지 인근의 학교들에 전문인력수급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일본) 오바야시	• 건설현장의 CO2 배출량, 용수사용량 등의 감소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적극 반영 • 통합시스템의 도입으로 종이사용량을 대폭 감소 • 건설폐기물의 배출감소와 재활용률 향상, 화학물질 등의 유해요소 집중관리 •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친환경 기업 육성 • 건설숙련인력 확보 및 협력사와의 상생관계 강화 (인증된 우수 현장 감독관·기업에 보조금지급 등) • 환경회계, 환경성과지표, 생물다양성 등도 KPI(핵심성과지표)에 반영 등
삼성물산	• 자사와 협력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 (온실가스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친환경건축물 건립위한 에너지효율화 기술과 온실가스 저감공법을 발굴 - 프로젝트 기획, 설계, 시공, 운영단계의 전 단계에 적용
SK건설	• 친환경·신에너지 사업을 통해 경제적가치(EV)와 사회적가치(SV)를 추구 - 종합 환경플랫폼 기업 인수(전국에 걸쳐 다수의 수처리시설, 소각장, 매립장 운영) - 국내 기업들의 RE100달성을 위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등 • 신용평가사와 '협력사 ESG 평가모형 개발' MOU 체결
DL이앤씨	• 안전체험학교 운영 및 안전혁신활동을 통한 무사고 작업장 추진 - 교육시설 규모확대 및 콘텐츠 추가, 교육인원 증대

2. 건설산업에서의 ESG적용 한계

건설산업과 ESG의 연관성은 크지만 실제 사업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개별 기업의 ESG평가에는 대량의 정량적·정성적 데이터가 요구됨에 따라 평가기관도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ESG평가를 예시할 때 흔히 언급되는 모건 스탠리의 평가방식(MSCI)이 대표적이다. 국내 전문평가사들의 방법론도 ESG의 세부요소에 대한 평가에 기반해 부정적이거나 논란이 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3 MSCI(Morgan Stanly Capital Iternational) ESG평가 (요약)

단계	내 용
1단계	• 2,100여개 미디어소스에서 공개데이터(정부, NGO, 기업공시자료 등)를 수집하고 표준화
2단계	• 검증과정을 거쳐 Peer그룹에서 상대적인 리스크평가
3단계	• 자체 방법론을 사용해 ESG를 항목별로 10개 테마, 37개 핵심으로 분류, 점수부여(1~10점)
4단계	• 개별기업에 대한 최종 ESG등급 부여(AAA~CCC)

때로는, 대상기업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 된다. 가령 피평가 기관의 자본력 등이 우수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을 수도, 평가항목을 산업별로 표준화하고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개별기업의 위험요소가 누락될 수 있다. ESG평가시 세부항목에 대한 방법론과 모형이 비공개되면, 평가를 받는 기업들이 ESG향상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할 지 막막해진다. 때로는, 기업에 긍정적인 요인만 부각하는 상황(Green Wash)도 벌어질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에서도 ESG는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ESG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제출자료 등의 규모가 적지 않고 ESG평가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ESG등급의 활용도가 주로 투자유치, 채권발행 등 금융 분야에 치우쳐 있다는 점도 ESG확산의 저해요소로 볼 수 있다.

물론, 전후방효과가 큰 건설산업의 특성상 ESG가 확립된다면 적용범위도 결국 확대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기업별 실무자들의 일반적인 반응도 ESG가 필요한 것은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다는 사례가 적지 않다.

IV. 협력시스템 구축과 지원방안

1. 건설산업 ESG조성을 위한 협력시스템 구축

필요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ESG를 택하도록 한다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일수록 ESG의 적용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ESG의 확대를 꾀한다면 산업 레벨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필수적이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전자에 속하는 건설업체는 그룹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실행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더라

도, 중소기업에서는 ESG에 대한 접근방법을 교육하고 ESG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등의 요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의 주요 특성이 수직적 분업구조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이런 접근 방식은 필수적이다. 발주자가 요구하는 ESG 역량을 충족하기 위해 원도급업체가 적정역량을 갖춘 하도급업체를 찾아야 한다면, 하도급업체에 적합한 별도의 ESG 평가기준이 정립되고 확산될 것이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그린 리모델링, 도시재생 등의 사업에서 ESG를 적용하고 건설과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건설 및 개발 사업에서 지역사회 발전 등을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전체적인 복리를 증진하는 체계로도 연결된다.

표 4 협력사 관리에서 ESG를 적용한 사례

기업	내 용
현대건설	· '14년, 협력사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 도입(업계 최초로 ESG항목 포함) · '20년, 협력사를 자재·시공분야로 분리해 평가 (노동·인권·인재개발·산업안전 등 포함)
삼성물산	· 협력사 모집시 노동 및 인권분야 평가 실시
포스코건설 SK건설	· 협력사 맞춤형 ESG 평가모형 개발 발표 (중소·건설업에 최적화)

2. 건설산업 ESG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지금은 전문기관마다 ESG평가기준 등이 상이하고 명확히 공개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산업별로 특성이 다르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건설산업과 건설기업에 적합한 평가기준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진다.

이에 정부는 국내 실정에 부합하면서 해외에서도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K-ESG 지표를 개발중이며, 이와 관련해 금년 상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간담회가 열린 바 있다(표 5 참고). 다만, 동 지표는 의무규정이 아닌 가이드라인의 성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표 5 한국형 ESG(K-ESG) 지표 분야별 대표 문항(안)

구분	내 용	문항수
정보공시	ESG정보 대외공개 방식, ESG 정보공개주기 등	5
환경(E)	재생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집약도 등	14

구분	내 용	문항수
사회(S)	정규직 비율,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등	22
지배구조(G)	이사회 내 여성인력 수, 내부비위 발생현황, 공개여부 등	20
계	정보공시(5), 환경(14), 사회(22), 지배구조(20)	61

건설산업에 적합한 ESG 평가시스템은 관련 기관들을 포괄하는 평가 플랫폼으로도 확대될 여지가 있다. 가령 한 기업이 ESG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여러 발주기관이나 타 기업에서 인정받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활용도와 효율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건설 ESG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육성할 필요도 발생한다. 동시에 건설업체가 평가에 대비하고 ESG를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ESG가이드라인을 준비해야 한다.

ESG평가결과를 기존의 시공능력평가액처럼 계량화하고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ESG 역량을 갖춘 건설업체에게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실무에서는 친환경자재나 친환경 공법의 자발적 사용같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만약, 발주자가 적정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평가기준과 항목에 중점을 두어 ESG표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면 기업들도 ESG를 도입할 유인이 커질 것이다.

지금도 전문기관을 통해 ESG등급을 평가받는 건설사들의 실무진은 평가기관이 제시한 항목에 맞춰서 자사에 가능한 사항을 찾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영리기업의 입장에서는 ESG의 중요성을 인식하더라도 결국은 ESG를 어떻게 기업의 수익에 연계할 것인지가 고민으로 남기에, 이를 ESG표준을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

3. 건설산업과 국제표준까지 부합하는 ESG 적용 유도

건설기업에 적용되는 ESG표준이 국내 여건만을 반영한다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국내 건설사들은 해외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ESG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표준을 설정하는 단계에서도 세계시장에서 통용가능한 기준을 사전에 다수 검토하고 반영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표준을 설정하기에 앞서 해외의 사례를 충분히 살펴봐야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계은행(World bank) 산하의 국제금융공사(IFW)가 제시한 건설사업자 선정의 가이드라인과 평가항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들 평가항목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각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가감

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표 6 국제금융공사(IFC)가 제시하는 건설사업자 평가항목(예시)

기업	내 용
환경·사회적 위험/영향의 관리와 평가	• 해당 기업의 환경, 사회, 보건, 안전정책 • ISO14001·ISO26000./OSHAS18001 등의 관련 인증내역 • 조직도(안전·보건·환경·사회·노동·주주참여 등의 이슈대응 기능) • 최근 3년간의 환경·사회적 업무결과 (처벌내역, 규제관리절차, 이해관계자 불만처리 등) • 하도급업체 선정 및 관리시스템(자사의 환경·사회적 기준 등을 준수) • 공급사슬(지역업체를 통한 조달노력, 품질과 가격의 적절여부 등)
노동·근로조건	• 최근 3년간의 보건안전 업무결과(근무시간, 사망·부상·질병 등) •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관행 정착유도 정책 • (노동법 등)관련 법률 준수 • 현지 근로인력 채용, 차별금지 • (유해성없는)현장시설표준 준수
자원효율성 및 오염방지	• 공사과정에서 생성되는 폐기물(고형, 유해성 등)의 관리,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 폐수관리방안 • 유해물질의 운송·취급·저장 방안 • 사업지의 토양제거와 저장(재활용), 침식방지 등의 관리방안 •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대기수준, 소음관리 방안 •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에너지효율성, 온실가스 배출관리 및 보고 • (공사자재 등) 자원효율성 향상방안
지역사회 보건, 안전, 보안	• 비상사태 대응방안(폭발, 사고, 오염물질 유출 등) •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기업차원의 교육·훈련방안 • 지역사회와 접하는 자사·협력업체·하도급업체 직원들의 행동강령 • (지역사회의 반감없이)건설현장의 안전·보안을 유지하는 상세방안
생물다양성·자연자원 보존관리	• 해당 사안에 대한 기존 대처사례, 향후 발생시 대처방안
문화유산	•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돌발사항(유적, 문화유산 등)에 대한 대처방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기존에 수행했던 건설사업에 적용된 기업의 사회책임사례, 추후 사업에서의 적용계획

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건설산업은 ESG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ESG의 적용에 따른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건설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적용해야 할 것이다.

먼저, 건설산업에서 ESG를 확산하기 위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국내 건설산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같은 업역이 구분되고 원·하도급관계라는 수직적 분업구조가 존재하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뉘

접근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공공부문이 함께 참여해 건설관련 여러 사업에 ESG를 적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편의제고와 사회전체의 복리를 증진하는 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건설산업의 ESG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지금은 평가기관마다 ESG기준 등이 상이하고 평가모형 등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산업특성에 부합하는 평가표준을 마련하고, ESG평가시스템은 관련 기관들을 포괄하는 평가플랫폼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에 더해 ESG평가결과를 계량화하고 공개하면서 적정역량을 갖춘 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ESG의 국내표준을 설정하는 단계에서도 세계시장에서 통용가능한 기준을 사전에 검토하고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ESG기준을 충족하는데 소요되는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Managing Contractors' Environmental and Social Performance, IFC, 2017
2. MSCI Investment Insights 2021, MSCI
3. Deconstructing ESG Ratings Performance: the journal of portfolio management vol.47 number 3. Feb.2021
4. The Real Face of Construction 2020 'Socio-Economic analysis of the true value of the built environment', CIOB(the Chartered Institute of Building)
5. 각 건설사 사업보고서, 보도자료